

이사회 개최 현황

□ 제4회 이사회

2015년 제4회 이사회가 지난 4월 15일(수) 오후5시 협회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 「2014회계년도 정기감사 결과 조치계획의 건」,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이 논의 됐으며, 부의안건으로 「위임전결규정 개정의 건」, 「준회원 입회 승인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
 - '건축사공제조합 TF'를 설치하여 회원과 협회의 이익에 부담이 되지 않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2014회계년도 정기감사 결과 조치계획의 건
 - 감사와 협의해서 조치 후 2014회계년도 정기감사 결과 조치보고를 하고 의견 취합
- 제3호 :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집행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 : 위임전결규정 개정의 건
 -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준회원 입회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1명, 이승석)

기타사항

· 지역건축사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회장의 임기가 각 지역건축사회 별로 2년 또는 3년으로 해당 건축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규정 개정 및 2015년도 협회발전워크숍 분임토의 주제 포함 등을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2015년도 제1회 임원, 시·도건축사회 회장 합동회의

2015년도 제1회 임원, 시·도건축사회 회장 합동회의가 지난 4월 15일 오후2시 협회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협의사항으로 「2015년도 협회발전워크숍 개최의 건」이 논의 됐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5년도 협회발전워크숍 개최의 건
 - 특별강연은 제외하고 건축사 업무업역 확대 등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행사로 구성하도록 함.

건축계 소식

‘2015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 5월 27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15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국토교통부 주최·대한건축사협회 주관)이 5월 6일부터 27일까지 참가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진건축사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은 그 해 최고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인 신진건축사를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한 수상전이다.

수상전의 참가자격은 공모 공고일(5월 1일) 현재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로서 본인 단독설계 완공작품이 1개 이상인 신진건축사이다.

신청자 편의제고를 위해 인터넷(kraa.kira.or.kr)으로 이루어지는 참가신청은 5월 6일부터 27일까지, 완공작 관련 포트폴리오 및 건축물 대장 등의 신청서 접수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건축분야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약 2개월에 걸친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오는 9월초에 최종 수상자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에는 국토부장관상 3명, 대한건축사협회장상 5명 내외이고, 작품집 발간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해당 건축사와 작품에 대한 홍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본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kraa.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을 대한건축사협회 사무국(02-3415-68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원도건축사회 신임회장에 ‘최성두 건축사’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장선출을 하지 못했던 강원도건축사회는 4월 24일 강릉 세인트컨벤션 1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최성두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라인)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강원도 재적회원 250명 중 111명 출석했으며, 만장일치로 최성두 건축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부여지역건축사회-부여군과 간담회 가저



부여지역건축사회는 지난 4월 6일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부여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부여군에서 지역 건축사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한 건축 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편의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건축조례 등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우 군수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건축사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무료로 기술 지도하는 기술지원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에도 거뜰히 견딜 수 있고 여성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수준 높은 건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여지역건축사회는 지난해 219동의 단독주택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 주는 재능기부를 실시하여 소규모 건축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올해에는 단독주택과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유일호 장관과 건단련 소속 단체장 조찬간담회 참석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4월 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와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과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3개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협회는 조충기 회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조회장은 “건축설계가 10조원 시장이 되면 건설시장은 2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한다”고 밝히며, 건축시장 활성화에 대해 건의했다. 아울러 건설위주의 정책 중 국토부에서 유일하게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정책관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축사징계에 대한 권한을 요구했다. 조회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건축사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사)한국외단열건축협회 공식 출범



사단법인 한국외단열건축협회(이하 외단열협회)가 지난 4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창립회원 54개사가 모인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건설사와 종합건축사사무소, 단열재 원료사, 외단열 소재 제조사, 시공산업, 학계, 연구계 인사들이 창립회원으로 참석했으며, 초대회장에는 한국바스프(주) 임재영 사장이 추대됐다.

외단열협회는 올해 한국형 외단열 기술의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절약 로드맵에 따른 건축물의 중장기 에너지 성능 확보와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는 내화성능 등 안전성능 확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외단열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건물에너지절약 정책 추진과 함께 건물에서의 단열효율 극대화를 위한 한국형 외단열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단열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단열협회는 경쟁입찰의 심화와 최저가 입찰 등에 따른 제품의 품질저하, 시공표준의 미정립 및 시공인력의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사천지역건축사회,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사천지역건축사회는 지난 4월 12일 사천지역건축사회관에서 건축사회원과 사천시 건축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정 청렴실

현'을 위한 협약체결과 인재육성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천지역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직 공무원과 함께 청렴의 지를 대외적으로 밝히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등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기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익산지역건축사회, 익산시와 업무협약 체결



익산지역건축사회는 익산시와 지난 4월 22일 익산시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민중심 안전·환경 우선행정 ▲재해·재난사전예방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 예방설계(CPTED)강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택개발시 건축 설계비 50%감면 등을 협약했다.
익산지역건축사회 안영목 회장은 “공무원들과 회원들이 협력해 안전한 도시 익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마포구지역건축사 18명, '안전지킴이'활동

마포구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4월부터 마포구 '안전지킴이'로 활동한다. 이는 대수선공사시 건축 비전문가가 구조를 보강계획 없이 임의로 해체하여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포구에 재능기부를 한 것.

그동안 해마다 대수선 신청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사감리 시행이 의무가 아님에 따라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마포구의 이번 사업은 마포구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8명의 재능기부를 받아 전액 비예산으로 진행되며 대수선공사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역건축사회, 수원시와 간담회 가져

수원지역건축사회는 수원시와 지난 4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건축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서태원 수원지역건축사회장을 비롯해 관내 건축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건축관련 공무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건축문화 품격 향상 및 건축도시 디자인 활성화 방안 ▲건축물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사와 공무원의 역할 ▲공공발주 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했으며, 홍익대 유한준 교수가 '도시 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건축사들은 조경 및 주차장 완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협조에 줄 것을 건의했으며, 수원시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15 제11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성료





2015 제11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가 지난 5월 7일, 8일 양일간 대구광역시 강변축구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건축사축구동호회 19개 팀, 500여명의 건축사가 참석했다. 우리협회 조충기 회장은 대회에 앞서 “축구대회는 각 시도의 명예는 물론 전국의 건축사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라며, “언제나 회원들의 자존심과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힘차게 달리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권영진 대구광역시 시장이 개막식에 참석해 건축사축구대회를 축하해 대회에 참석한 건축사들의 사기를 높였다. 5월 7일 예선과 8일 본선을 거친 결과 경기 청이 우승을 울산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경기 청의 송운섭 건축사가 수상했다.

대한건축사협회, 네팔 지진피해 구호성금 모금

우리협회는 네팔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 건축전문가단체로서 범건축계 차원의 지원방법을 찾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지난 4월 25일 네팔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의 재난복구와 이재민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우리협회 전회원을 대상으로 '1인 기부운동'을 진행한다.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와 협력해 특별모금 활동을 펼치는 것.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건축사회원뿐만 아니라 건축관련 단체 및 건축종사자, 건축대학 등 범건축계가 동참하는 성금모금을 요청했다. 성금모금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전 회원들에게 성금모금 독려 메일을 보내는 한편 기타 건축관련 단체에 동참 유도 협조요청을 보냈다. 조충기 회장은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문화유산 피해에 대해 네팔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명하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어 네팔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서 속히 벗어나길 기원한다”며 “범건축계 차원의 성금모금 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위로서신을 네팔건축사협회에 보내고, 아시아지역 건축사단체들과도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10년 발생한 아이티 지진과 2011년 일본 지진 피해 당시 각각 2천만 원씩 성금을 마련해 지원하기도 했으며, 태국 홍수 피해(2011)와 필리핀 태풍 피해(2013) 시 태국건축사협회와 필리핀건축사협회에 각각 지원금을 보내기도 했다.

<보낼 곳: 기업은행 667-002597-04-257 예금주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역7017 국제현상설계공모 비니마스의 '서울수목원' 선정

- 총 7개 작품(국외 4, 국내 3)중 네덜란드 건축·조경 전문가 비니마스 작품 선정
- 서울역고가 큰 나무로 설정, 램프 나뭇가지로 비유...17개 보행길과 자연스럽게 연계



서울시는 서울역7017 프로젝트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네덜란드 건축·조경 전문가인 비니마스(Winy Mass)의 '보행길을 수목원으로' (Green City Project)를 주제로 한 '서울수목원'(The Seoul Arboretum)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수) 밝혔다.

당선작은 고가를 공중(空中)정원으로 조성하는 기본구상안으로 서울역고가를 하나의 큰 나무로 설정했다. 퇴계로에서 중림동까지 국내 수목을 가나다순으로 심고, 램프는 나뭇가지로 비유해 시가 발표한 17개 보행길을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자연을 매개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생명의 장소로 전환하는 비전과 전략이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하며, 노후화된 고가와 주변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건축·조경·구조 분야의 협업과 근대 산업유산을 되살리는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의 초청작가 7명을 선정, 국제 지명초청 방식으로 진행했다. 초청작가는 ▲후안 헤레로스(Juan Herreros, 스페인) ▲마틴레인-카노(Martin Rein-Cano, 독일) ▲비니마스(Winy Maas, 네덜란드) ▲창용허(Chang Yung Ho, 중국) ▲조성룡 ▲조민석 ▲진양교 총 7명이 참여했다. 심사 기준은 ①장소의 발견과 해석 ②주변지역과의 연계 ③고가의 원형보존 및 재구성 ④프로그램 등에 주안점을 뒀다.